

중소 성장사다리 지원...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목표

산업부, 수출 2000억 달러 확대 1조 규모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10년간 R&D 자금 1.5조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을 1만 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 고용은 250만 명, 수출은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10년간 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로 만든다.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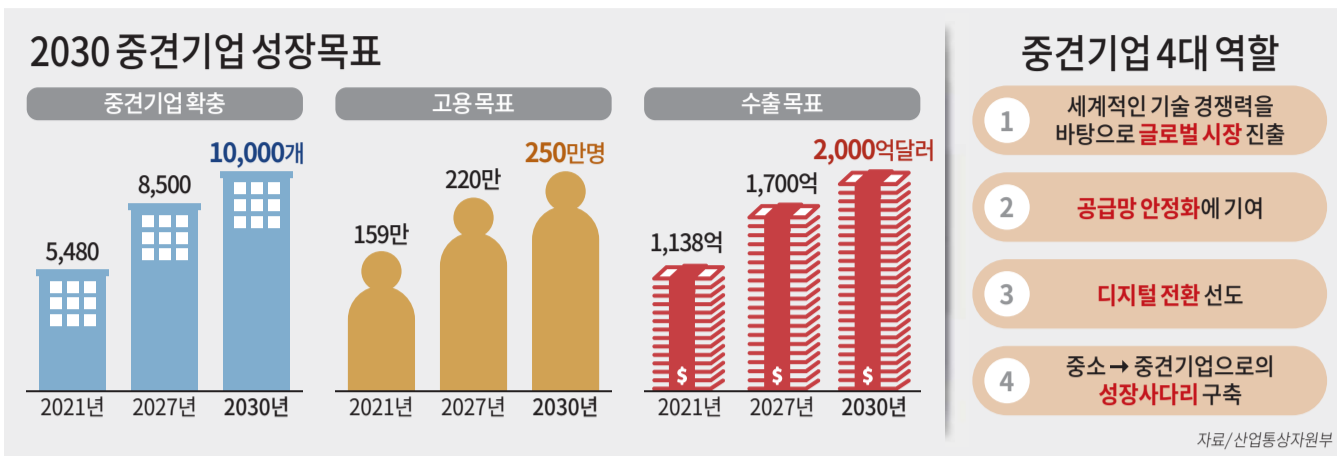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가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5480개사, 수출은 1138억 달러다.

정부는 중견기업들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27년 중견기업 8500개 달성'을 지나 3년 후인 2030년엔 1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30년 최종 목표를 위해 2027년 기준 고용은 250만명, 수출은 1700억 달러를 1차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중견기업 4대 역할

- 1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 2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3 디지털 전환 선도
- 4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역할 강화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성장 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방향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 첨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첨단 제조, 스마트 가전, 미래형 조선, AI로봇, 항공,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정보통신,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을 주력했다.

이들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DX)에 2033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 각 분야별로 선도기업군 100~150개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5대 핵심 산업 내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속도를 높이는 지원트랙도

운영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부가 매년 100개씩 '고성장 혁신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R&D, 수출, 인력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합 패키지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견기업들이 신사업·신기술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사업발굴→기술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다.

신사업 발굴 단계에선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만나 신사업·신기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얼라이언스(동맹), 산학연·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 확보 단계에선 중견기업 R&D를 '신청→평가→선정' 전주기에 걸쳐 투자 촉진형으로 전환해 사전에 투자 받은 기업의 경우 R&D 선정시 우대한다.

투자·재원 확보 단계에선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출시한다.

법, 규제, 인력 등의 지원제도도 정비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견기업계가 발표한 '2027년까지 160조원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진단단'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외에 수도권 위주로 열린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확대해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 대해 "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견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수로, '전략'이 제시한 KDB산업은행의 6000억원 규모 전용 용자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에 더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견기업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연 회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단순히 특정 기업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의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의 기본 조건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전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제반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차례상, 시장 27만원... 마트보다 6만원 싸

(4인 가족 기준)

소진공, 27개 품목 가격 조사 작년 설 보다 전통시장 3.1% 상승 고사리·깐도라지·대추 등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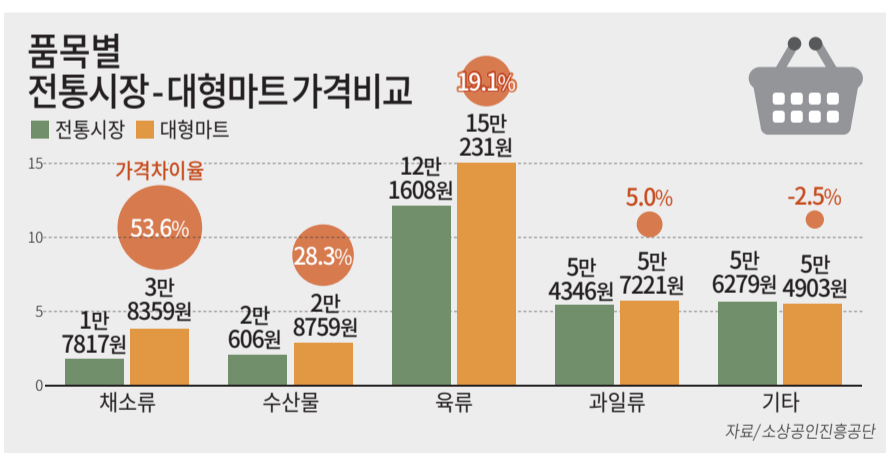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5만800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지난 3일부터 6일 사이 전국에 있는 37개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16일 내놓은 결과다.

소진공에 따르면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은 전통시장이 27만656원, 대형마트가 32만9473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8817원(17.9%) 저렴한 모습이다.

27개 조사 품목 중에선 19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특히 고사리(66.7%), 깐도라지(65.6%), 대추(47.7%), 동태포(45.5%), 숙주(42.8%), 탕국용 쇠고기(34.7%) 등의 가격이 싸다.

품목별로는 채소류(53.6%), 수산물



(28.3%), 육류(19.1%)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3.1% 상승(26만2645→27만656원)한 반면 대형마트는 3.6% 하락(34만1859→32만9473원)했다.

소진공은 과일류, 채소류의 경우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및 저장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한파와 폭설로 대과와 무 등 일부 채소류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소고기는 도축 마릿수 및 공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돼지고기는 생산량과 공급량이 증가했지만 외식 수요 증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위기감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호 이사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1월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고 있으며 총 상품 5억원 규모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기간 신선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이태원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중기부, 용산구청 4층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이태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지원센터는 용산구청 4층에 자리를 잡았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등을 위한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용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해 합동으로 원스톱지원센터를 꾸렸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에 대한 현장안내,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답변 및 소관기관 전달·검토결과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성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임원 전원과 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진공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임운주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운주 기초실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인권위 "외국인에 음주운전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사진 뉴시스
- ▲ 이변주 검찰 인사위... '중요사건 수사' 감안해 소폭 단행 전망

- ▲ "겨울철 전기제품, KC인증·리콜여부 확인해야"
- ▲ 당정, 교육개혁 협의... "유보통합·늘봄학교,尹정부 소명"



- ▲ 수도권매립지공사, 설연휴 마지막 날 폐기물 특별반입 /사진 뉴시스
- ▲ 심상춘은 고용상황... 고용장관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